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  
7번출구 최종 탐방보고서  
-글로벌 시대, 여대의 비전을 찾아서-

팀명: 7번출구

## - 목 차 -

1. 서론
  - 1) 탐사배경 및 목표
  - 2) 사전 설문조사
2. 본론
  - 1) 탐방학교 소개
  - 2) 미국여대의 특징
    - (1) 소통
    - (2) 교육
    - (3) 연대
  - 3) 기사 기획안
  - 4) 현지 설문조사
  - 5) 전문가 인터뷰
3. 결론
  - 1) 결론
  - 2) 프로그램 진행 시 한계점

### 1. 서론

#### 1) 탐사배경 및 목표

작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시대, 여대의 비전을 찾아서’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세우기 전, 7번출구 팀은 여대생으로서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싶었다. 팀이 하는 고민이 곧 이화를 다니는 학생들의 고민이기도 했다.

여대생의 고민은 다양했다. 출발 전 이화여대생 3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한 결과, 이들은 이화 특유의 ‘아웃사이더’ 문화에 적응을 못해 방황하거나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여대 안에서 고립감을 느껴 취직 후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지 않을까 고심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 내외부적으로 소속감의 부재를 느끼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곧 ‘내가 왜 이화에 다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여대가 가지는 입지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고민에 한 몫 했다. 남성이 독점하던 기회를 여성과 나누는 것이 목표였던 과거의 여대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여대에게 그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녀공학을 택한 여대도 있었다.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는 신라대, 대구가톨릭대, 상명대 등이 여자 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미국 동부 7대 명문 여대인 ‘세븐 시스터즈(Seven Sisters)’ 소속이었던 래드클리프 대학(Radcliffe College)은 1999년 하버드 대학교(Havard University)에 흡수통합 됐다.

왜 여대에 가야할까. 7번출구팀은 여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최근 여대생이 고민하는 문제, 이화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탐방으로 알아오기로 했다. 대상 국가는 세계 최초의 여대 마운틴 홀리요크와 명문 여대 연합 세븐 시스터즈가 있는 미국으로 정했다. 미국은 여대에서 힐러리 클린턴(웨슬리), 하버드 첫 여성 총장 드류 길핀 파우스트(브린모어) 등의 여성 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팀은 2013년12월24일~2014년1월6일 미국 보스톤, 뉴욕에서 미국의 세븐 시스터즈에 소속된 스미스, 마운트 홀리요크, 버나드, 웨슬리 대학에 직접 다녀왔다. 미국 대학을 직접 돌아보고 다니는 학생과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 미국 여대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크게 소통, 교육, 연대로 나뉘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1 7번출구 현수막 디자인, 출구로 나가는 모향을 형상화했다.

## 2) 사전 설문조사

7번출구팀은 여대생이 여대에서 겪는 고민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화여대 학생 35명과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 5개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4명을 포함해 총 5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직접 만나서 진행했으며, 학생과 만나기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전화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해 실시했다.

####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여자대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성적에 맞춰 왔다(40명)’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족의 권유’, ‘학교의 사회적 인식’ 등이 있었다. 대부분 여대를 선택할 때 학기 초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 여대에 온 후 다른 사람들에게 여대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생 대부분이 ‘있다(54명)’고 대답했다. 편견의 유형에는 ‘너 이대생 안 같다’, ‘이대애들은 왜그래?’, ‘이대에 정말 된장녀 많아?’, ‘여자들끼리만 있어서 진짜 재미없고 경쟁만 치열하겠다’ 등이 있었다.

3. 여자대학이 남녀공학으로 통합되는 것에서는 대부분 ‘반대(47명)’를 선택했다. 이유로는 ‘아직 성차별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여대의 필요성이 있다’, ‘눈치보지 않고 소소한 재미가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 본교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 등을 꼽았다. 찬성하는 사람은 10명이었고, 이들은 ‘지금 한국은 양성평등이 이뤄졌다’, ‘여성이 남정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인정받고 있다’ 라는 이유에서 찬성했다.

4. 한국에서 여자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4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성평등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낮다’, ‘OECD국가 중 성 평등 지수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 등이 있었다. 반면 응답자 중 5명은 ‘이미 있는 여대를 없애지는 않아야겠지만 더 이상 여자대학이 생길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5. 여대가 졸업 후 남녀공학 대학에 비해 동문 간 유대가 더 끈끈하게 이뤄져 있느냐는 질문에 27명이 ‘끈끈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선배들이 학과 행사에 빠짐없이 오신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많은 조언과 이끄심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봤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끈끈하지 않다’고 답한 32명은 ‘여성들은 아직 육아, 가정일 등으로 사회진출이 남성보다 많지 않아 동문회 참석도 드물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6. 학년이 올라가면서 만족도가 상승 혹은 하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승했다(49명)’, ‘하락했다(7명)’, ‘잘 모르겠다(3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승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여대를 다니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을 탈피해 현상을 파악하는 시야가 더욱 넓어졌다’, ‘학교 분위기가 내 자신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등이 있었고, ‘하락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개인적인 문화’, ‘소외감’ 등을 이유로 꼽았다.

7. 자신이 다니는 여자대학이 남녀공학 대학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주체성(16명)’, ‘리더쉽’, ‘성장’ 등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끔 억울하고 상처 받는다’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8.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고 보내냐는 질문에는 ‘학교 근처 카페(33명)’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쇼핑’, ‘운동’, ‘공부’등이 있었다. 학생들은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는다. 본교 앞에는 여러 형태의 카페가 많다’라고 말했다.

9. 현재 귀하의 가장 큰 관심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9명이 ‘진로’를 꼽아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학업(7명)’, ‘여행(3명)’ 등이 있었다.

10. 여성학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학생 21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이슈를 다뤘고 성차별적인 처우를 당했을 때 항의할 수 있는 근거를 배워 좋았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줬다’등 대체적으로 여성학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1. 여자대학에서 여성학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학생 5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기 때문’, ‘적어도 각 분과 학문에서 여성학적 시점을 다루는 것이 꼭 필요’등의 대답을 했다.

12. 여성학 수업이 남녀공학 대학에서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확장돼야 한다’가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시각이 많은데, 인식을 개선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대, 공학 할 것 없이 모두가 여성학을 접해봐야 한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때로는 기득권층이 겪는 역차별까지 다루는, 모두를 위해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 가를 배우는 학문이다’ 등의 의견을 냈다.

## 2. 본론

미국 세븐 시스터즈 중 네 개 여대 탐방을 기획했다. 이화와 세븐 시스터즈의 공통점은 남자 대학 중심에서 탈피해 여성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다양한 교육 과정, 여성의 사회 활동에 따른 사회적 리더십과 글로벌 세계 변화에 적응하는 품격을 갖춘 인물을 배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7번출구팀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7개 명문 대학 중 스미스, 마운트 홀리요크, 버나드, 웨슬리를 방문했다. 이들 여대는 이화여대에 비해 학교 규모가 소규모로 학생 수는 2000명 정도이다. 또한, 교수 1인 당 8~9명 학생 배정이 돼 있어 우리나라 학교보다 사제 간 더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소수 정예의 글로벌 여성 인력을 배출한다. 세븐 시스터즈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체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1) 탐방학교 소개

#### (1) 스미스 대학(Smith College)

스미스 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노스햄튼 시에 위치한 Liberal arts college이다. 스미스

대학은 웨슬리 대학,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 버나드 대학 등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여자 대학 중 하나다. 스미스 대학 전체 학생 수는 3,100여명이고 그중 2,600명, 대학원 과정 학생이 500명으로 전형적인 4년제 소형 문리과 대학이다.



스미스 대학 정문 앞에서. 이 정문은 졸업을 하고 지나가야 한 번에 졸업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한 미국 대학 평가서는 스미스 대학은 여대의 장점을 살려,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을 시켜주는 대학이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대학 인문학과 전반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역사, 경제, 영어학 등이 특히 발달했다. 학생과 교수의 비율은 8:1로서 교수 자원이 많다. 스미스 대학은 4년제 학부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 과정도 두고 있다. 특히 교육학 석사 과정, 농아 교육 석사 과정, 사회학 석사와 박사 과정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주변에 있는 5개 학교 연맹과 함께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다른 분야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2)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Mount Holyoke College)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1837년에 설립한 세계 최초의 여자 대학이다. 세븐 시스터즈 중 가장 먼저 설립돼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초 여성 교육의 개척자인 메리 라이온(Mary Lyon)이 Mount Holyoke Female Seminary(여성 신학교) 라는 이름으로 설립해, 당시 여학생이 배울 수 없었던 남성 대학의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1888년에 현재 이름으로 바꾸고 Liberal arts college가 됐다.

보스톤에서 차로 1시간30분, 뉴욕에서 약 4시간 걸리는 곳에 위치한 마운트 홀리요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대학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명문 Liberal Arts College 중 하나다. 이곳은 하버드 다음으로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학으로 1학년 학생 중 86%가 장학금을 받았으며, 1인당 액수는 약 2만8322달러<sup>1)</sup>였다. 2010년 Princeton Review(프린스턴 리뷰)에서 'Best Classroom experience(뛰어난 학습 경험)' 분야에서 미국 전 대학 중 1위, 이외에도 학생의 정치 참여 분야 3위,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7위에 등극했다. 2012년에는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 소속 교수 14명이 가장 뛰어난 교수 300인 안에 들기도 했다.

마운트 홀리요크 학생들은 마운트 홀리요크를 줄여 MoHo(모호)라고 부르며, 학생 스스로를 모호인이라고 부른다(이화인이라고 부르듯). 학생 9명 당 교수 1명의 비율로, 전교생은 약 2,100명이다. 국제 학생은 전체 학생 14%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 대학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교와 숙명여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 정문 앞에서

### (3) 버나드 대학(Barnard College)

버나드 대학은 미국 동부의 명문 여대인 세븐 시스터즈에 속한 미국의 명문 여대다. 버나드 대학의 정식 명칭은 Barnard college of Columbia University인데, 그 이유는 Columbia University(콜롬비아 대학)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Harvard University(하버드대학)과 Radcliff college(래드클리프 대학)이다. 세븐 시스터즈에 속한 여대인 래드클리프 대학은 하버드 대학에 완전히 병합되면서 그 이름도 Radcliff Institute(래드클리프 연구소)로 바뀌었다. 사실

1) 『가난한 아빠 미국 명문대 학부모 되기』, 이강렬, 황소자리, 2008.

상 독립성을 잃은 셈이다.

하지만 버나드 대학은 다르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버나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은 붙어있는데 비록 콜롬비아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버나드 대학은 행정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각기 다른 총장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신입생 선발, 교수 임용 등 모든 절차가 버나드 대학 소관이다.

양교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버나드 대학 재학생은 콜롬비아 대학의 수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클럽 활동도 함께 한다. 콜롬비아 대학 재학생 역시 버나드 대학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캠퍼스는 양교가 함께 나눠 쓰는 체제다.

버나드 대학의 학생 수는 약 2000명 정도로 일반적인 미국 대학 재학생 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교와 교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매년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버나드 대학 교정 안에서. 인터뷰이 Gloria Noel씨를 취재하고 있는 박선영, 황선영 팀원(왼쪽부터).

#### (4) 웨슬리 대학(Wellesley College)

웨슬리 대학은 미국 Boston 교외 Wellesley지방에 위치한 명문 여자대학이다. 이곳은 Liberal arts college 순위에서 매년 상위 5위 안에 선정되고 있다. 2300명의 재학생이 56개의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웨슬리 대학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대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웨슬리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와 영부인 바바라 부시(Barbara Bush) 등이 웨슬리 대학을 졸업했다.

웨슬리 대학은 인문학과 전반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학 분야가 명성이 높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은 7대 1 정도로 우수한 교수 자원을 학생들이 소수로 혜택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주변에 있는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등 보스턴에 위치한 다른 대학교와 수업, 교외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가장 혹독한 한파를 치러낸 웨슬리 대학 방문 날. 이날은 영하 18도 까지 떨어졌고, 교통이 전면 마비됐다.

## 2) 미국 여대의 특징

### (1) 소통

#### ①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교수님’ 교수와 학생의 소통

앞서 밝힌 대로 미국 여대는 교수 1인당 배정된 학생 수가 8명꼴이다. 때문에 미국 여대는 우리나라 여대와 달리 교수와 학생이 끈끈한 유대를 보인다. 학생은 교수와 유대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는다. 이들은 거리가 우리나라 대학보다 가까웠고, 상담을 해주는 제도도 다양했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 이름과 사진만 아니라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붙여놓는다.

스미스 대학에는 학교 곳곳에 교수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이에 학생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교수의 집(연구실)에 찾아갈 수 있다. 마운틴데이를 앞두고 학생들이 총장의 집 찾아가 문을 두드릴 정도로 교직원-학생간 벽이 높지 않다. 교수들이 학내에 살면서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교수의 집에 찾아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종종 찾기도 한다.

마운틴 홀리요크 대학 역시 우리 학교처럼 연구동이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사이사이에 교수 연구실이 있어서 소통이 쉽다. 재학생에 따르면 위치상 오피스 시간 외에도 교수를 만나거나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교수님을 담당 교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학생들은 담당 교수님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연애, 가정사 등의 개인적인 문제도 공유하면서 고민을 나눈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의 스킨십을 할 기회도 있다. 버나드 대학은 'Midnight breakfast'라는 간식 행사를 진행한다. 본교의 '총장 간식'과도 비슷한 행사다. 기말고사 기간 전에 'Reading week'이 주어지는데 밤을 샌 학생을 위해 학교 교수진과 임직원이 일종의 아침 식사를 나

뉘주는 행사다. 이때는 학생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행진 밴드가 화려하게 연주를 한다. 교수가 수업 시간 외에 학생과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 시간에도 학생과 접촉하면서 친근감을 높인다.

조언을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대학보다 적극적인 제도가 있었다. 버나드 대학은 'Dean of grade'를 통해 전공과 관계없이 학년 별로 학장을 배정한다. 이들은 지도 교수 역할을 한다. 이와는 별도로 'advisor system'도 있으며 학생은 각자 어드바이저 교수를 배정 받는다. 어드바이저는 학생들이 수업을 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요구조건이나 졸업 요건을 살펴준다. 또한 전공과목 중 어떤 과목을 듣는 게 도움이 될지를 상담해주기도 한다.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정해주며 전공이 정해지면 학생들이 직접 어드바이저를 선택할 수 있다.

본교생은 지도 교수라 할지라도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수강신청 및 졸업 요건 확인 등도 각자가 커리큘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도 교수는 졸업 논문 등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개인의 조언자가 되기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 시 이러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②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든든한 언니들 선후배간 교류

여대 내에서 누구보다 밀접하게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선배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수강신청,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팁을 공유하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교는 1학년 때 학부로 구성돼 있어서 선후배간 만남이 어렵고, 멘토-멘티 제도가 있지만, 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힘들었다. 미국 여대에서는 선후배간 만남을 더 빈번하게 할 수 있었다.

마운트 홀리요크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Sisterhood(자매애, 선후배관계)를 가장 큰 자랑으로 꼽았다. 돈독한 선후배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이어진다.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선후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M&C(Milk&Cookie)' 타임은 마운트 홀리요크의 Sisterhood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학교가 밤 9시30분 쯤에 학생들에게 우유와 과자를 나눠주는 일종의 학교 전통으로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제공된다. 시험기간에는 초콜릿과 컵케이크를 나눠준다. 학생들은 밀크앤쿠키 타임에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여 우유와 과자를 나눠먹으며 대화를 나눈다. 재학생들에 따르면, 선후배 간 교류는 밀크앤쿠키 타임에 많이 이뤄진다. 이 시간에 대화를 나누며 쌓은 관계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밀크앤쿠키 타임을 유지하고 있다.

'엘프'는 마운트 홀리요크가 선후배 관계 증진을 위해 만든 전통이다. 2학년이 신입생의 '엘프'가 되어서 5일간 요정처럼 밤에 몰래 신입생의 방문을 장식하고 선물을 가져다 놓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니또를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신입생이 자신을 찾아오는 엘프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문 앞에 둔다. 5일이 지나면 엘프와 신입생이 만나서 친목을 쌓는다.

'Big sis-Little sis'도 마운트 홀리요크의 Sisterhood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생 주도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교가 아닌 일부 학생회에서 주도해 진행하고 있다. 학생회는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2~4학년 학생을 한 명씩 배정해 Big Sister와 Little Sister 관계를 맺는다. Big Sister는 Little Sister에게 학업 및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도와준다. 이들은 마치 친자매처럼 생활하고 Little Sister가 Big Sister가 되면, 그 아래

Little Sister까지 대대로 관계가 이어진다.

웨슬리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은 학교에서 맺은 선후배 관계가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웨슬리 출신끼리 만나면 학교만의 구호를 외치는 등 서로를 더욱 챙긴다. 이는 누가 시켜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가 아닌 학생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전통’이다.

웨슬리 대학은 다른 학년들끼리 짝꿍을 맺어줬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워선데이’로 선배 한 명당 후배 네 명 정도씩 팀을 정해준다. 이들은 서로 선배는 ‘Big’, 후배는 ‘Little’이라고 부른다. 팀이 된 학생들은 첫 만남에서 서로 꽃을 주고받으며 함께 팀이 된 것을 축하한다. 팀 구성원끼리는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며 밥을 먹거나 함께 소풍을 가는 등 여가생활을 가지기도 한다. 웨슬리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웨슬리를 졸업하기 전, 꼭 해야 하는 50가지’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플라워선데이로 만난 팀끼리 하나씩 하는 경우도 많다. 종종 마음이 맞지 않는 멤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자체적으로 다른 멤버를 영입하거나 트레이드하며 “입양했다”라고 한다.

학교 적응이 힘든 신입생들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선배 한명 당 신입생 9~10명 정도씩 팀을 구성해 약 10일 정도에 걸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전달이 되고 신입생 때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준다.

이화에 입학한 신입생들도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책임지고 케어해주는 선배는 따로 없다. 개인적으로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외에는 혼자서 해야 한다. 물론 자립심을 키워줄 수는 있지만 사회에서 드러난 ‘이화’라는 파워에 비해 돈독한 결집력은 떨어진다. 웨슬리의 다양한 선·후배 멘토링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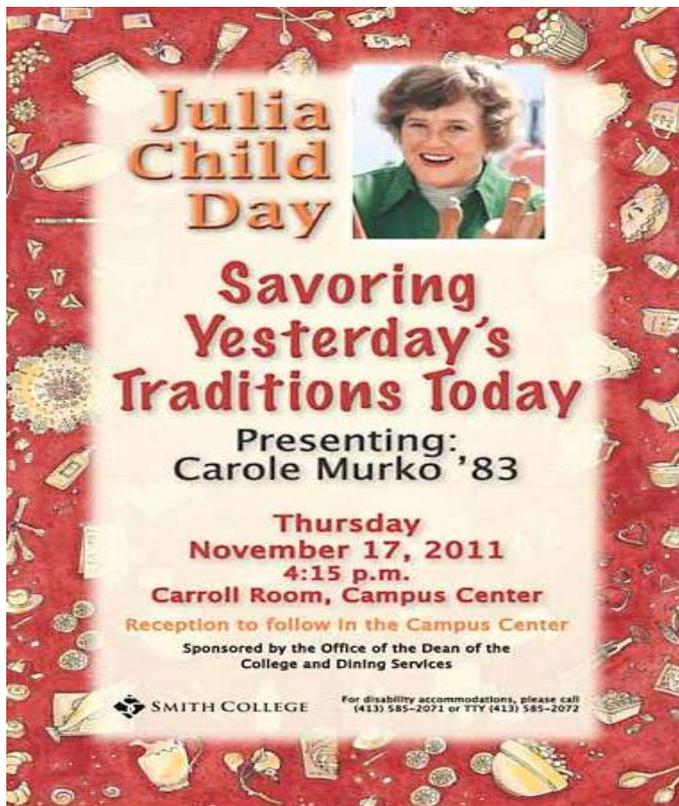


버나드 대학에서 4학년 학생의 커리어를 위해 진행하는 Senior Experience 프로그램.

### ③ 학교의 오랜 전통 행사로 구성원 간의 소속감 다져

미국 여대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학교 별로 이어지는 전통 행사가 있었다. 구성원들은 이에 참여하고 즐기며, 학교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상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념일을 함께 즐기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이화여대도 이화여대만의 기념일을 만들어 학생들이 무언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미스 대학에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행사가 많이 열린다. 대표적인 행사는 마운틴 데이다. 이 날은 가을 중 날씨가 좋은 날에 총장이 7시 반에 학교 중심에 있는 종을 울리고 “마운틴 데이!”라고 외치는 날이다. 이날은 함께 밥을 먹고 뒷산에 올라 사과를 따기도 하고 파라다이스 연못에 가서 피크닉을 하기도 한다. 각 학생은 샌드위치 만들어서 놀러가고 하우스 별로 애플파이를 함께 만들기도 한다.



스미스 대학 줄리아 차일즈 데이 포스터(출처=스미스 대학 홈페이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학생회가 주도하는 셔츠 염색, 모래시계 만들기, 성탄절 쿠키 만들기 등의 아기자기한 행사다. 보연씨 말에 따르면 주말에도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한다. 학생회도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한 부서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미국 여대 중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학교다. 이곳도 여느 여대와 같이

‘줄리아 차일즈데이’라는 행사도 있다. 이는 미국 유명 요리가이자 스미스 대학 졸업생인 줄리아 차일즈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각 기숙사 다이닝 마다 줄리아 차일즈가 만든 레시피로 저녁을 만드는 날이다. 교내에는 15개의 다이닝이 있는데 4학년의 졸업 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15개의 다이닝을 다 가보는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는 호박, 칠면조가 인기 메뉴였다고 한다.

가을학기 한번 꼭 있는 ‘오텔리아 크롬웰 데이’는 오텔리아 크롬웰이라는 스미스 최초의 흑인 학생 입학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은 오전 수업은 하고 오후 수업은 다 취소된다. 오후에는 인종, 평등 등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유명인의 연설이 진행된다.

학생회 주도의 행사도 자주 열린다. '스미스 to do'라는 행사다.

학교 고유의 전통을 새기는 기념일을 섀다. 로렐 퍼레이드, 마운틴 데이, 앞서 소개했던 엘핑, M&C(Milk and Cookies) 등이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졸업식을 2~3일 걸쳐 성대하게 치룬다. 로렐 퍼레이드는 졸업식 하루 전날 졸업생이 흰 옷을 입고 월계수 나뭇잎으로 엮은 끈을 들고 행진하는 행사다. 흰 옷은 여성 운동가의 희생을 상징하며, 끈은 여성 교육의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운틴 데이는 마운트 홀리요크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전통이다. 가을 학기 중에 수업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날씨가 좋은 날을 총장이 골라서 오전 7시에 종을 울리면 교수는 그날 모든 수업을 휴강한다. 수업이 휴강되면 학생들은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 먹거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소풍도 가며 자기 나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이 일정은 총장밖에 몰라서 학생들은 이 날짜가 언제일지 맞추는 내기를 한다. 또한, 마운틴 데이가 늦어지면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귀엽게(?) 시위를 해 마운틴데이 선포를 조르는 일도 있다. 마운트 홀리요크의 시작으로 이후에 웨슬리, 스미스에서 전통을 이어 받았다.



마운틴 데이(출처=스미스 대학 홈페이지)

버나드 대학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다. Midnight breakfast는 본교의 ‘총장 간식’과도 비슷한 행사다. 기말고사 기간 전에 Reading week이 주어지는데 밤을 샌 학생을 위해 학교 교수진과 임직원이 일종의 아침 식사를 나눠주는 행사다. 이때는 학생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행진 밴드가 화려하게 연주를 한다.

바베큐 파티도 있다. 매년 봄에 열리는 이 행사는 중앙 도서관 앞에서 바베큐를 비롯한 간식을 제공하는 행사다. 폴리마켓 등의 행사도 덩으로 열린다. 이외 버나드 대학 학생들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리는 한국 축제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재원 Gloria는 버나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이 자매 학교인 만큼 대부분을 함께 공유하지만, 버나드 대학의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을 투여 내내 내비쳤다.

이러한 ‘전통’은 모두 학생들 간 단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선후배, 혹은 전교생이 만나서 치루는 행사로 학교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것이다.

#### ④ 기숙사 내 공동체 활동으로 친목 다진다

미국 여대는 기숙사 운영은 이화여대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학생이 기숙사에 배정되기 전 인적사항과 동시에 취미, 잠버릇, 성향 등을 적어내고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한 룸메이트를 배정해 준다. 랜덤으로 방 배정을 하는 본교 한우리집 기숙사 배정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신입생이 룸메이트와 관계로 적응을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으니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기숙사 학생 간 교류도 활발하다. 스미스 대학을 예로 들면, 우선 각 기숙사에는 주 1회, 티타임시간이 있다. 매주 한 번씩 각 기숙사별로 모여 함께 차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티타임 시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님을 초청하기도 한다.

기숙사 내 활동인 ‘하우스 액티비티(House Activity)’도 대규모로 열린다. 네 가지 하우스가 있는데 각각 졸업 후에도 리유니언이 활발하다. 졸업하고 동창생들끼리 만나면 “너 어디 집 나왔어?”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한다. 졸업할 때도 하우스 이름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 행진을 할 때도 하우스끼리 팻말 들고 함께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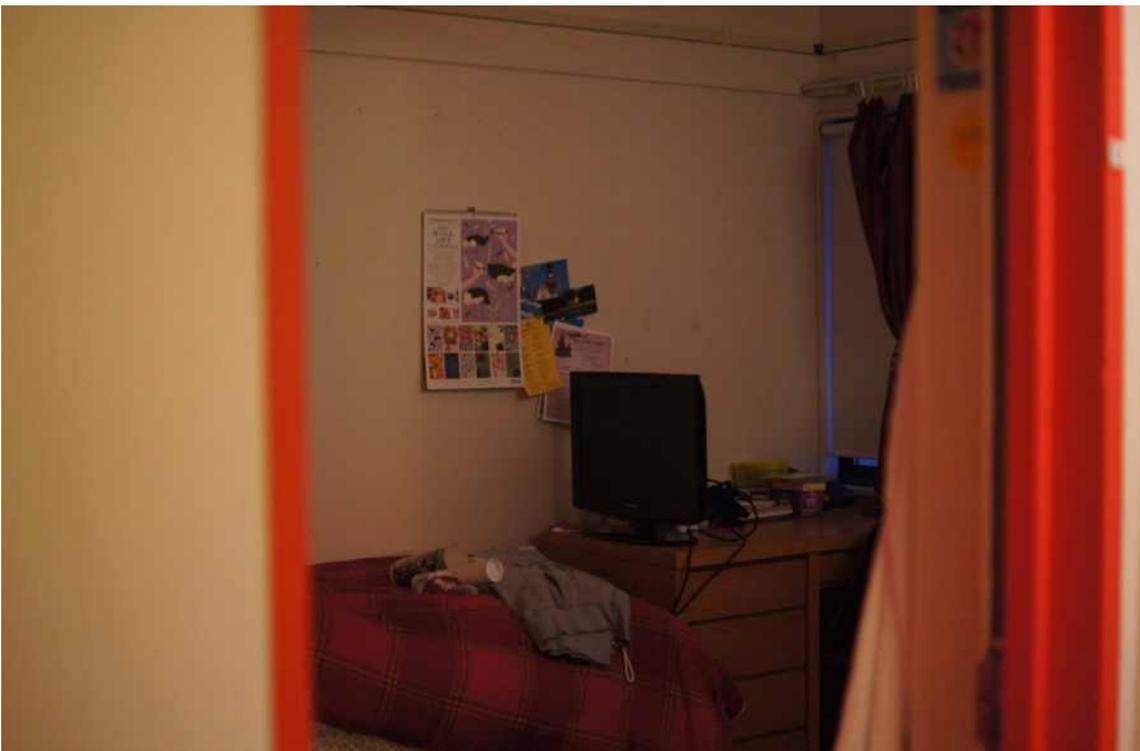
스미스 대학 기숙사 모습. 기숙사는 네 가지 하우스로 나뉘어 각자 특색을 지닌다.

기숙사 내 결연 제도도 흥미롭다. 기숙사 내에서 고학년이랑 저학년을 Sibling으로 맺어주는 제도로, 이 ‘자매결연’은 다단계 형식으로 1~4학년~졸업생까지 이어진다. 이는 신입생이 학교에 처음 들어와 자신을 전담하는, 자신만 챙겨주는 선배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소

속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스미스 대학 근처의 학생 아파트. 고학년은 아파트에서 서넛이 뭉쳐서 산다.



스미스 대학 아파트 내부의 학생의 방. 각자 방이 한 개 씩 있고, 주로 2층 구조다.

마운트 홀리요크도 기숙사 문화가 독특했다. 재학생 수가 적지만, 약 2,000명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복권처럼 추첨을 해서 기숙사 선택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다. 정문에 가깝거나 자신의 주 강의실과 가까운 기숙사가 인기가 좋고, 강을 건너야 하거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덜 좋은 기숙사는 인기가 없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막 지어진 기숙사 1인실을 쓰는 경우도 있다. 기숙사마다 문화나 식당, 상징하는 마크 등이 다르고 분위기도 차이가 있어서 각자 유대감이 좋다고 한다. 탐방한 기숙사는 국제 학생이 많이 살고 있는 기숙사였는데, 1층 큰 홀에 모여서 같이 포켓볼을 치거나 소파에서 대화를 나눴다. 함께 구비된 부엌에서는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버나드 대학은 기숙사가 밀집해 있는 Quad다. 버나드 대학은 여느 미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재학생 대부분이 캠퍼스 내에서 거주한다(On-campus). Barnard Hall 옆으로 들어서면 네모난 모양의 건물이 나타난다. 4개의 기숙사가 이어진 형태며 각각 Hewitt Hall, Brooks Hall, Reid Hall, Sulzberger Hall로 불린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함께 생활을 하는데 각 층마다 층장 격인 RA(Residence Assistance)가 있다. 각 홀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만큼 클럽만큼이나 학생 자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기숙사라고 할 수 있겠다.

## ⑤ 국제학생과의 교류, 외국 학생의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여대에서는 외국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있었다. 이는 반드시 여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운트 홀리요크에서는 유난히 많은 국제 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70개국에서 온 학생이 마운트 홀리요크에서 공부(2013년 기준)하고 있다. 전교생 중 14%가 국제 학생이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국제 학생 중 아시아 학생은 11%, 이들 중에서 중국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으나 최근 2년 연속 한국인이 총학생회장을 맡아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운트 홀리요크는 외국 학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해준다.

학교 식당에서도 다양성 존중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기숙사마다 식당 메뉴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중 일부 기숙사에서는 다른 국적의 학생을 배려한 메뉴가 나온다. 예로 Wilder 기숙사에서는 이슬람 학생을 배려해서 코셔(Kosher)와 할랄(Halal)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셔는 유대교 식사에 관련된 율법 카샤룻에 어긋나지 않은 음식을 말하고,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또한, 채식주의자 학생을 위해서 모든 식당이 채식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찾아가 인터뷰를 한 재학생(대부분 아시아인)들은 마운트 홀리요크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했다. 재학생들 말로는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강한 민주당 지지 학교이며,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한다. 인종차별 문제 외에도 여성 문제에 적극적이고, 동성애자, 저소득층, 종교 등에 기본적으로 관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2) 교육

### ① 전 범위에 걸친 여성학 교육 진행

여성학 교육은 여대의 특징이다. 이화여대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여성학 교육을 실시하며, 여러 전공 수업에 여성학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한다. 미국 여대도 여성학 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버나드 대학의 장점은 ‘여성학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전공마다 여성학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 개설돼 있다. 따라서 이곳 학생들은 굳이 여성학(Womans and gender studies) 수업을 따로 듣지 않아도 자신의 전공 수업을 통해 여성 평등에 고안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본교의 경우 여성학 수업이 인기 교양 과목이기는 하지만 여성학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여성학이 다루는 생각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버나드 대학에서 진행되는 페미니스트 살롱의 모습. 여성학 학회 학생들이 토론 중이다.

‘Economics of gender’, ‘Politics of Gender’ 등 여성학과 연계지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반 사회과학의 내용을 ‘여성학’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여성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과목들이 개설돼 있으며, 이러한 과목들은 제휴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에게도

크게 사랑받는 수업들이다. 버나드에서 만난 Gloria씨가 수강했던 ‘Gender and Empire(성과 왕국)’ 수업의 경우 수강생의 절반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온 남학생이었다.

‘the Athena Film Festival’은 실제와 허구 세계 등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단편 작품 등을 상영하는 버나드 대학의 영화 축제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4일에 걸쳐 진행되며 할리우드 유명 스타, 감독 등이 참석할 정도로 큰 규모의 축제다.

버나드 대학의 여대로서 정체성(Feminism)을 잘 보여주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화여대에서도 변영주 감독 등을 필두로 여성 영화인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영화 축제를 크게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본교 역시 여성학을 교양으로 본교생은 물론 타대생에게 개방하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전공 각 영역에서 여성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화여대만의 전공 수업 개설을 고심해볼 수 있겠다.

## ② 넓은 부지를 활용한 적극적 스포츠 수업

스포츠 활동도 활발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스포츠 시설은 승마장이었다. 실내, 실외 승마장은 물론 말 약 50마리가 있는 마구간도 있었다. 한 학기에 약 3만원만 내면 말과 승마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스미스 대학 내부에 있는 승마장. 마운트 홀리요크도 해당 규모의 승마장을 가지고 있다.



스미스 대학 승마장 안에서 황선영과 말

마운트 홀리요크는 졸업 전까지 6학점을 체육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다. 마운트 홀리요크 역시 다른 대학처럼 승마장이 따로 있고, 요트도 탈 수 있어서 체육 수업 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편이다. 승마, 킥복싱, 요가, 댄스 등 다양한 체육 과목을 수업으로 진행하고 여가 시간에도 시설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동회 같이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행사는 없었지만, 시설이 많고 운동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있었다. 오픈 클래스를 열어서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배울 수가 있었고 등록금 내에서 그 비용이 해결됐다. 재학생에 따르면 체육 수업이 활발하게 열린 탓에 그 곳에서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 ③ 벽을 없앤 토론 수업

미국 대학은 학생 수가 우리나라 대학보다 적기 때문에 토론 수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수업 분위기가 뿐 만 아니라 학교 내부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마운트 홀리요크를 예로 들 수 있다. 내부에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학교가 전통이 있는 학교라 건물 역사도 오래됐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숨어있다. 도서관, 강의실을 불문하고 의자나 소파를 빙 둘러놓은 방이 마련돼 있다. 방에는 폭신한 소파 외에도 차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벽난로가 함께 있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곧 학생 몫이다. 방은 교수와 학생이 고민을 나눌 때, 학생끼리 토론할 때, 수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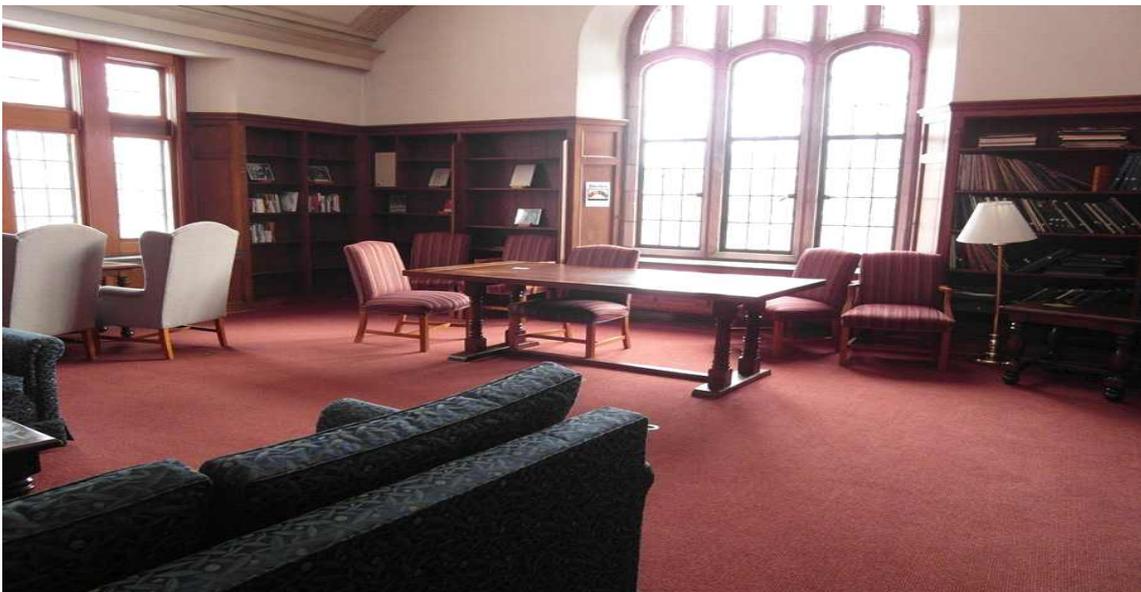
수업도 대부분 토론 수업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외국인 학생 비율이 미국 전체 대학에서 높은 축에 속한다. 마운트 홀리요크의 다양한 인종 구성은 적극적인 토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각자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하다. 학교 자체에서 ‘차이’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토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토론 주제도 다양하다. 전공 선택을 2~3학년 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듣고 선택한다. 문과, 이과 선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토론으로 승화한다. 탐방과 밀접한 ‘여대의 미래’에 관한 토론도 이뤄지기도 했다. 마운트 홀리요크 재학생은 ‘여대vs남녀공학으로 전환’에 대해 교수와 토론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운트 홀리요크가 세계 최초의 여대로서 전통과 의미가 있다는 입장과 마운트 홀리요크의 수업을 남녀 관계없이 개방해야 된다는 입장이 충돌한 흥미로운 토론이었다고 한다.

토론 문화는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로도 이어진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근처에 있는 타대와 교류하기도 하고, 타대와 모의법정, 토론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눈다. 주말에는 하버드에 가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마운트 홀리요크에 다니는 재학생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업 자체가 적극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떠들 수 있는 정도가 도서관 구역마다 표시돼 있어서 떠들어도 되는 장소에서는 토론을 한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학교 구석구석에 모여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많아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용이하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 도서관 모습

#### ④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리더십 수업

여대가 남녀공학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성 리더를 위한 수업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 대학도 이에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를 위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리더십 센터(Leadership center)를 운영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리더십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더십 센터에서는 리더십 패스पोर्ट를 발급하는데, 이 패스포트는 리더십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줘 일정 이상 쌓이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가령 리더십 관련 강연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우수한 학생은 여성 리더와 인터뷰 기회나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연단에 서서 발표할 기회도 여러 차례 제공한다. 리더십 관련 활동을 하는 학생은 장학금도 준다. 세븐 시스터즈에 소속된 학생회가 돌아가면서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며 ‘여성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진다. 리더십 패스पोर्ट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래 여성 리더로서 교육을 받고, 리더십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버나드 대학은 최근 아테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리더십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협상 능력 등을 가르친다.

### (3) 연대

#### ① 주변 남녀공학과 연대와 교류 활발해

스미스 대학에는 다른 주변 남녀공학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다. ‘Five college 컨소시엄’이라고 불리며 에머스트, 유메스 등 근처 남녀공학대학, 또는 마운트 홀리요크 등 여자대학과 깊은 유대를 갖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4년 동안 한번은 꼭 타교의 수업을 듣는다. 스포츠 클럽활동이나 연극부 등 동아리들도 5개 대학끼리 대부분 연계돼 있다. 이 5개 대학은 시험기간 등 학사일정도 비슷해 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활동하는데 편리하다. 이들 대학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도 다닌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5개 대학을 이동할 수 있어 주변 공학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다방면으로 대학과 교류하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스미스 대학도 포함된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아이비리그, 세븐 시스터즈, 근방 지역 대학과 교류했다.

특히 근방 지역 대학과 교류가 활발했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근처 스미스 칼리지, 매사추세츠 주립대, 햄프셔 칼리지, 에머스트 칼리지와 교류한다. 본교가 연세대와 서강대 등과 학점 교류를 하는 것처럼, 이곳 역시 서로 학점 교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5개 대학을 잇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해당 대학 학생은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을 한 동아리를 만들거나 학생회끼리 교류가 활발해 연합 파티나 행사도 잦은 편이다.

세븐 시스터즈도 교류하고 있다. 리더십 캠프를 서로 진행하거나 세븐 시스터즈 동창회도 만들기도 한다. 한국은 웨슬리를 주축으로 한 세븐 시스터즈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 취업 정보나 학업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세븐 시스터즈 모임은 근방 지역 대학과 교류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었다.

웨슬리 대학은 주위에 있는 다양한 대학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었다. 웨슬리 안에만 계속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녀공학에서 수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게 한다든지 협정교류를 맺은 대학에서 정해진 개수만큼 수업을 들으면 해당 학교의 학과를 부·복수전공 했다고 인정해 주기도 한다.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는 버나드 대학 학생들 모습

본교도 연세대, 서강대 등과 학점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나서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스미스 대학만큼 자연스럽게 않다. 따라서 대부분이 이화 안에서만 수업을 듣고 졸업한다. ‘여대’라서 남학생과 교류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학생 대부분이 꼽는 이화의 단점인데, 스미스 대학과 주변 다섯 대학의 교류처럼 무료 셔틀버스 제도 등으로 더욱 서로간의 장벽을 없애 교류를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다.

② 지역 주민과도 가까운 학교, 지역 주민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기도



스미스 대학에 방문했을 때 붙여져 있는 문구. ‘지역 농산물만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는 뜻이다.

스미스 대학을 방문했을 때였다. 탐방을 마치고 학교 앞 거리로 나오자 ‘local support’라고 쓰여 있는 가게들이 보였다. 이 표지판이 걸려있는 가게는 지역의 재료를 쓰거나 지역 고유의 상품을 파는 가게다. 학교와 지역사람들의 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국에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지역 재료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도 지역 주민들이 와서 유기농 농장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기숙사 식품도 대부분이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수업 중에 농장 관계자가 와서 설명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역 사과농장주 직접 재배한 사과를 들고 와서 재배 과정에 대해 설명해준다.



웨슬리대학은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했다.

### ③ 웨슬리 대학은 자부심 위해 ‘학부모 참관 수업’ 연다

웨슬리에서도 여자대학 출신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흔히 사회에서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하며 선입견이 있듯 미국에서도 ‘Wellesley Bubble’이라고 부르는 편견이 존재했다. 웨슬리 대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대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참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웨슬리 대학에는 일정 기간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한다. 특정한 날을 학기마다 정해서 참관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날짜에는 딸 수업 외에도 어떤 수업이든지 학부모가 들어가서 수업을 볼 수 있다. 참관 수업 일자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가 와서 수업을 참관한다. 이 참관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 구성원은 이 참관 수업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이 참관 수업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학 수업을 접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이 웨슬리의 커리큘럼을 직접 보고,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수도 이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커리큘럼을 배정한다.

학내에 동문, 가족을 위한 호텔도 있었다. 웨슬리를 사랑하는 동문, 가족 누구나 이곳을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에 자부심을 느끼며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내부에는 웨슬리의 역사 면면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돼 있었다. 웨슬리 캠퍼스 전경 그리고 반대편은 웨슬리대학을 대표하는 호수가 보이는 전경으로 객실이 각각 나뉘어져 있었고 그 내부도 안락한 분위기가 돋보였다. 자신이 공부한 곳을 방문해 결혼을 하고 종종 호텔에 묵으러 온다는 것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 3) 기사 기획안

(1) 1주차 기획 기사(3월24일 발행)

- 답을 내용: 프롤로그, 소통(기숙사, 선후배간 교류, 학교 명절, 교수와 학생 교류), 취재노트(미국 한파), 학교 소개(스미스, 마운트 홀리요크)

-면 상황:

	프 롤 로그	소통(기숙사, 선후배간 교류, 학교명절, 교수 와 학생 교류 등)	
		취재노트	학교소개

1면 ◎

해외취재면 ◎

-실제 3월24일 발행 면



(2) 2주차 기획 기사(3월31일 발행)

-답을 내용: 교육(여성학, 스포츠, 교수학생-토론수업/공간적 의미)+ 취재노트(마운트 홀리요크 거위 '조지')+ 학교 소개(버나드, 웨슬리)

-면 상황:

교육(여성학, 스포츠, 토론수업)	
취재노트	학교소개

해외취재면 ㉔

### (3) 3주차 기획 기사(4월7일 발행)

-담을 내용: 연대(지역과 연대, 남녀공학과 교류)+ 취재노트(버나드맘)+ 전문가 인터뷰

-면 상황:

연대(지역 연대, 남녀 공학과 교류)	
취재노트	전문가 인터뷰

해외취재면 ㉔

면 상황 하단의 ㉔는 컬러면이라는 뜻이며, 당일 상황에 따라 면은 변동될 수 있다.

### 4) 현지 설문조사

본팀은 미국여대생이 그들 여대에서 겪는 고민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운트 홀리요크대, 스미스대, 웨슬리대, 버나드대에 재학중인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직접 만나서 진행했으며, 학생과 만나기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전화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해 실시했다.

-미국 여대생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여대에 온 후 다른 사람들에게 여대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5명)’, ‘있다(5명)’이 대답했다.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사회성 결여’, ‘페미니스트 일 것’

이라는 편견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2. 여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고(8명)’, ‘인지도(1명)’, ‘호기심(1명)’이 답했다. 학생들은 ‘초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대학의 교과목과 프로그램이 좋아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3.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에는 6명이 반대, 4명이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최초의 여대가 없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어차피 타 공학과 가깝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전환할 필요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 등이 있었다.

4. 자신이 다니는 여대가 남녀공학에 비해 유대가 끈끈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명이 ‘그렇다’, 3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세계 여성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유대는 끈끈할 수밖에 없다’ 등의 이유를 들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주변 공학과 교류를 해보니, 공학 학생들도 동문 간 끈끈한 편’이라고 말했다.

5. 여대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명이 ‘불필요’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여성을 위한 교육, 여성에 대한 지지, 여성의 롤 모델과 멘토를 공유하고 여성 인권 향상을 이끌기 위해 필요’, ‘여대는 남녀공학은 할 수 없는 기회와 관점을 제공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등의 대답이 있었다.

6.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학생 대부분(8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서로 돕는 분위기’, ‘멘토링제가 잘 돼있어서’ 등이 있었다.

7. 여대의 장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인적 네트워크(3명)’, ‘캠퍼스 환경(2명)’, ‘기회보장(2명)’, ‘학교프로그램(1명)’, ‘소수정예수업(1명)’ 등의 대답이 있었다. 학생들은 ‘더 많은 기회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 여대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대의 단점으로는 ‘남성과의 소통 부족(7명)’, ‘편견(2명)’, ‘경쟁(1명)’ 등이 꼽혔다.

8.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명은 ‘친구를 만난다’고 답했고 5명은 ‘교내에 기거한다’고 답했다. 미국 여대 특성상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학교만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9. 현재의 관심사를 묻는 질문에는 ‘진로(6명)’, ‘졸업(4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여대생과 마찬가지로 미국 여대생들도 진로와 졸업, 취업을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있었다.

10. 여성학을 수강한 적 있냐는 질문에 7명이 ‘없다’, 3명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학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8명)’, ‘필요없다(2명)’이라는 대답이 나왔고, 그중 9명은 ‘남녀공학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남녀공학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여성학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학은 필수’ 등의

코멘트를 달았다.

## 5) 전문가 인터뷰

### (1) 버나드 대학 학생처 담당자 Rachel Romesburg와 인터뷰

1. 귀 대학에서 학생처의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우리 부서는 해외 및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버나드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경험이 학생의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을 해외 연수, 국제학생과의 협력, 타대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이끌어내게끔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버나드에서 추진 중인 특이한 프로그램으로는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VISP) 우리 대학의 많은 협력 대학은 주로 남녀공학 대학으로 이들이 버나드에 와서 여성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게끔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고국에 가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가게끔 합니다. 이화여대 학생 역시 VISP를 통해 버나드에 방문할 기회가 있지요.

2. 귀 대학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889년부터 버나드 대학은 최고 수준의 여성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다른 여대와는 매우 차별화되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자유전공체제와 끈끈한 연대를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교와 같은 주변 주요 대학의 전공 과목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차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클럽, 스포츠 동아리에도 그들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하튼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3. 미국 사회에서 여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대에서는 프로그램, 학생활동, 수업, 행사, 강의가 젊은 여성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학생들은 매우 강력한 여성 유대 속에서 용기와 지원, 우정 그리고 동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지요.

남녀공학 대학과 비교해 여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더 활발히 목소리를 냅니다. 여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고 교수진과 교류도 활발하다는 연구가 있지요. 그들은 리더십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고, 여성 멘토, 롤모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습니다. 캠퍼스 환경도 다양한 교류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합니다. 또한 이들은 남녀공학 대학에 비해 자아에 관한 이해와 자신감이 높습니다.

4. 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특히 어떤 프로그램이 여대의 한계를 개선하고 여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나요.

버나드 대학은 어린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리더십 연구를 위한 아테나 센터는 우리 학생과 동문뿐만 아니라 이 나이 때의 전 세계 여성의 리더십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멘토십, 국제적인 대화를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5-1. 여대 재학생으로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나요. 한국에서 여대 재학생은 가끔 사회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같은 의미로 여대생은 매우 ‘독립적이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요.)**

버나드 대학생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성을 지닌 도시에서 오직 여성만으로 구성된 작은 환경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인 혹은 배움에 있어서의 기회는 캠퍼스 교정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죠. 버나드 대학 학생들은 콜럼비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종류의 클럽, 조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내 셀 수 없는 경영, 문화 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주는 이점, 이를테면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5-2. 한국 여대생은 때로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잘 한다는 지, 너무 주체적이라든지, 사치스럽거나.) 이곳 학생들도 유사한 편견에 시달리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곳엔 여대 학생들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긍정적인 편견은 있죠. 미국에서 여대 졸업생이 의회 내 여성의원 중 20%를 차지하고 있고 30%의 비즈니스 위크 리스트의 떠오르는 여성 인사가 여대 출신이었죠. 하지만 모든 여대생 중 2%만이 여대에 재학중이죠.

## 6.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버나드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를 하거나 그들의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매우 엄격한 학업 정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버나드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각자 분야에서 그들의 열정을 갖고 뛰어난 여성리더가 되길 바라죠.

## 3. 결론

### 1) 결론

7번출구팀이 조사한 미국 여대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교수와의 친밀한 관계, 토론식 수업 문화, 학교 전통 기념일을 챙기면서 친목 강화, 선후배와의 끈끈한 유대 관계 등이었다. 이를 7번출구팀은 소통, 교육, 연대라는 키워드로 묶었다.

소통에는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선후배간의 교류, 오랜 전통으로 구성된 간의 소속감, 기숙사 내 공동체 활동으로 친목 다지기, 국제 학생과 교류가 있었다.

미국 여대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을 8명 배정했으며, 우리나라 대학보다 끈끈하게 교류했다. 스미스 대학에는 학교 곳곳에 교수가 거주하는 집이 있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수

를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은 강의실 사이에 교수 연구실을 배정했다. 이들은 개인적 고민도 나누고 있었다. 버나드 대학에서는 'Midnight breakfast'라는 간식 행사를 통해서 교수진과 접촉했다. 이외에도 'Reading week'로 학교 교수진과 임직원이 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나눠주기도 했다. 버나드 대학은 Dean of grade, advisor system으로 학생들과 상담하는 집중적 프로그램이 있었다.

선후배 관계에서도 학교 제도적, 전통적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스미스 대학은 하우스 액티비티가 있었고 또한 졸업 후에도 리유니언 활동도 활발했다. 자매결연을 다단계 식으로 맺어 소속감 향상시켰다. 마운트 홀리요크은 선배가 '엘프'가 되어 후배를 돌보는 '엘핑', Big sis-Little sis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웨슬리는 다른 학년끼리 짝을 지어줘 멘토링 하는 플라워 선데이가 있었고, 선배 1명 당 신입생 9~10명을 구성해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친목을 도모했다.

단합을 요구하는 학교 전통 명절도 인상적이었다. 스미스 대학은 마운틴 데이, 줄리아 차일즈 데이, 오틀리아 크롬웰 데이, 스미스 to do 등이 있었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M&C, 마운틴 데이 창시 학교, 로렐 퍼레이드 등을 진행했다. 버나드는 Midnight breakfast, the athena film festival, 바베큐 파티를 진행했다.

미국 여대는 전교생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기숙사 문화도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스미스 대학은 주 1회 티타임, 기숙사 내 결연 제도 등으로 공동체 정신을 강화했다. 마운트 홀리요크는 1층 큰 홀에서 포켓볼을 치거나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고향 음식을 나눠 먹었다. 버나드 대학은 기숙사가 밀집해 있는 Quad로, 홀 분위기가 각각 달라 행사와 학생 자치를 활발하게 꾸렸다.

교육에는 전공 무관하게 전 범위에 걸친 여성학 교육 진행, 넓은 부지를 활용한 스포츠 수업 진행, 벽을 없앤 토론 수업,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여성 리더십 수업 등이 있었다.

여성학 교육은 여대의 독보적인 특징으로, 버나드 대학은 여성학을 바탕으로 한 수업 전공 과목마다 개설하고, 영화제를 진행했다.

마운트 홀리요크와 스미스 대학은 넓은 부지를 활용해 승마, 카누 등의 스포츠 과목을 개설했다. 지역 주민도 해당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토론 수업도 장점이었다. 일단 미국 여대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이는 비단 미국 여대만의 특징은 아니었으나, 토론 주제가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등으로 실제 여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수와 학생이 토론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었다.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운틴 홀리요크는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고, 리더십 패스पोर्ट를 발급했다. 버나드 대학은 아테나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협상 능력 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연대에는 주변 남녀공학과 활발한 교류, 지역 주민과 연대해 학생들이 지역 주민에게 배우고 나누는 문화와 함께 웨슬리 대학에서는 학부모 참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교 외부와 연대했다.

스미스 대학은 주변 남녀공학 대학과 컨소시엄을 열고, 마운트 홀리요크는 셔틀 버스로 주변 대학과 쉽게 오갔다. 자연스레 연합 행사가 크게 주최됐다. 웨슬리 대학은 학점 교류 및 부복수 전공을 나눴다.

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강점이다. 지역 주민이 기른 채소가 학교 근처 가게에서 판매되고, 식재료도 지역에서 탄 식재료를 썼다. 지역 주민이 일일 강사로 나서서 학생들과 교류하고, 학생들이 지역 봉사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외에도 ‘웨슬리 버블’ 등의 편견을 이겨 내기 위해 학부모 참관 수업 등으로 학내 구성원의 자부심을 북돋기도 했다.

## 2) 프로그램 진행 시 한계점

(1) 한파로 인한 돌발 상황: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한파가 닥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사무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 차량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한파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한국에서 이미 확정이 됐던 약속의 경우(보스턴 레드클리프 연구소)에도 사무실 문 앞에 와서야 약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앞으로 이곳으로 탐방을 계획할 경우 날씨로 인한 변수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교통편: 주로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미국 대학 특성상 하루 안에 여러 대학을 탐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팀의 경우 고속버스인 그레이하운드를 통해 이동했다. 그레이하운드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때로 사전 공지가 없는 돌발 취소, 좌석 수가 넘는 예약(Over book) 등으로 갑자기 교통편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통해 취재를 할 경우, 그레이하운드가 예정 시간보다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예상하고 이동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3) 현지 설문조사: 현지 설문조사를 계획에 두고 약 100부의 설문 분량을 준비해왔지만, 현지에서 직접 취재원을 만나고 기사 구조를 계획하며 다량의 (객관형) 설문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생, 현지 전문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하다보면, 정작 한국에서 힘들게 준비해왔던 취재 자료가 무의미해지는 변수가 발생한다.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고생만 하고 무의미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4) 외국 학교와의 소통: 버나드 대학 학생처의 경우 본교 취재진에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다른 대학 학생처, 연구소 등과 소통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질문 내용이 까다롭고 방대한 탓에 탐방 후 계속 연락을 하면서도 이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어려웠다. 다녀와서도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했지만, 대부분이 불발됐다.

(5) 현지 대학과 우리 대학의 적용 범위: 취재 전부터 유념해둬야 했던 부분은, 현지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여대의 경우 칼리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대보다 학생 수가 훨씬 적었다. 학생 수가 적고, 부지는 넓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범위도 그만큼 달랐다. 무조건적 벤치마킹이 아닌 현지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장단점을 포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난 미국에서 만난 여대생은 여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신의 학교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감’이라

는 키워드였다. 미국 여대생은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소속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학교 내에서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다고 응답했다. 교내 구성원이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외부의 편견을 겪는다는 응답도 우리나라 여대생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다. 미국에서 조사한 사례를 우리나라 여대에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이 소통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어느 정도 모색한 것 같다.

가장 큰 발견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 자체다.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국내에 도착해서까지 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연말 뉴욕 숙소 문제, 팀원의 일정 변동으로 인한 비행기표 취소 등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현지에 가서도 우리나라에 연일 기사가 보도 될 정도로 큰 한파, 교통편, 취재원의 불현 듯한 약속취소, 당일에 방문했는데 문을 닫는 등 난제가 따랐다. 그러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7번출구팀은 특히 이를 조사 보고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학보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기사를 통해 재구성했다. 기사로 재구성하며 다시금 조사 결과를 되돌아보는 기회도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 적극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끝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 자체를 깊이 배우게 됐다. 학교에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적극 지원해준다면, 실제 우리나라 여대에서 문제로 꼽히는 ‘소속감’ 문제 역시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